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정도와 자녀훈육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arental Social Support and Child Disciplinary Practices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
전임강사 문혁준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ull-time Instructor : Hyukjun M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social support and disciplinary practices for fathers and mothers of young children. Two hundred-twenty mothers and two hundred-twenty fathers completed measures of parental social support and child disciplinary practices.

The analyses were conducted separately for the group of fathers and the group of mothers. Descriptive analysis, Cronbach' α , correlations, and t-tests were used to examine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Social supports of the provisions of guidance, reliable alliance, and attachment were higher for mothers than for fathers. On the other hand, social support of the reassurance of worth was higher for fathers than for mothers.
2. Social supports of the provisions of guidance and reliable alliance were higher for fathers of sons than for fathers of daughters.
3. Social supports of the reliable alliance and social integration were higher for fathers of higher income than for fathers of lower income.
4. For both fathers and mothers, the higher they perceived their social supports, the more they used effective parental disciplinary practices.

I. 서론

IMF라는 경제 상황 즉 기업들의 연쇄적인 부도 사태, 고실업, 고물가, 임금 감소 등의 요인이 각 가정에 직·간접적으로 안겨 준 위기 의식은 극단적인 경우 자살, 이혼, 가출 등을 포함한 가족 구조의 조정 및 변화 등을 거치며 가정내의 심리적인 스트레스의 증가를 불러 일으킨 동시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가족 구성원간의 이해와 화합의 의미를 새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하여 핵가족화된 가족 구조, 맞벌이 부부의 증가, 개별화된 현대 사회의 특성은 부모에게 자녀 양육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아울러, 성인의 다른 역할들에 비해 부모의 역할은 자녀 양육과 연관되어 신체적·정신적 피로, 부부관계에서의 갈등, 경제적 책임감, 사회적 기회 제한 등과 더불어 부모에게 요구되는 책임의 증가와 상승된 부모 역할 기대로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으로써(한세영, 1996; 이은숙, 1988; Belsky et al., 1984), 현대 부모에게 있어 친척, 친구, 이웃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로 언급되어 왔다(성영혜, 1993; Crockenberg, 1988). 뿐만 아니라, 아동발달연구에서 가족을 포함한 인접환경과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생태학적 관점(ecological systems perspective)의 등장으로 자녀양육 행동에 있어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적 특성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Belsky, 1984; Bronfenbrenner, 1986).

부모의 역할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발달 및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었다(Perry & Bussey, 1984, 문혁준, 1998, 1999b). 한 예로 유아기와 아동기에 부모는 훈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아동발달에 있어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효력을 보이는 부모훈육방법은 연령이 어린 아동에게서 그 영향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Patterson et al.,

1992),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부수되는 부정적인 결과도 긍정적이며 지원적인 부모에 의해 그 파급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ettit et al., 1997). 따라서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자녀 훈육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과 구체적인 조언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성혜, 1994).

한편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체제와 자녀양육참여 및 부모역할수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전에 간간히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사회적 지지를 다룬 연구에서 아버지를 포함시킨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가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어머니 못지 않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Lamb, 1987), 어머니보다는 부모가 더 많은 빈도로 아동 양육 행위의 주체로 언급되고 있는(김영주, 1995) 시대적 상황에서, 아버지를 단지 어머니의 양육 역할에 경제적 지원을 하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구적 존재라는 인식(박문학, 1989)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동등한 동반자로서 아버지를 포함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겪는 갈등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양육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박민석·박성연, 1999)과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이중 역할(직업 역할과 가족 역할)을 요구하는 추세에서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아버지가 가지는 사회적 지원정도와 부모역할 수행을 관련 지어 보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경제적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이 가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재조명되어야 할 시점인 만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통적인 유교사상으로 인하여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한 사회적 특성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부모양육행동을 좀 더 심도 깊게 이해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사회적 지원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아동의 성별과 가

정의 소득정도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며, 각 유형별 사회적 지지가 부모가 사용하는 훈육방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국가 또는 사회 단체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부모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자녀 훈육 측면에서도 강조시키고, 가족 및 아동 복지 측면에서 부모 지원 프로그램의 방안을 탐색하고 내용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버지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간에 상호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데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가정의 소득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5)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녀 훈육방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으로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행동이나 행위로써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지지로 크게 분류되며, 정서적 지지는 공감 인식 및 위안 그리고 이해와 격려 등을 포함하며, 도구적 지지는 가사일 및 자녀 보호 등 직접적인 도움을 뜻하고, 정보적 지지는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에 관련된 조언 및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Crockenberg, 1988).

사회적 지지가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상호친밀하고 복합적인 사회관계망은 정서

적·심리적 안정감과 자긍심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주는데 일조(一助)하며(Antonucci, 1990), 친구, 친척,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원은 우울증, 가정내의 스트레스,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 아동의 부적응 문제 등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신기영, 1991; Garbarino & Kostelny, 1993). 또한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신장시켜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보다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며, 이들 문제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완충적인 작용을 하여 준다(Craig, 1983; 유우영 등, 1998). 더 나아가 빈번한 사회체계 구성원 간의 접촉은 사회적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켜 줄 뿐만 아니라(Rook, 1990), 자신이 주위로부터 필요한 인간임을 느끼게 하여 심리적 복지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졌다(유지영·김명자, 1996).

또한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있어 주요한 환경 변인으로 입증되었으며(한미현, 1996), 특히 취학 전 아동의 발달적 특성은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구순주·최보가, 1998),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외향성, 사려성, 학교생활 적응도와는 정적 관계가 있으며(Creech, 1991; Homel et al, 1987), 부모의 지지체계와 아동의 문제 행동간에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영혜, 1993).

국내에서 이루어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수를 보면 평균 6.5명으로(이은혜·이미리, 1996), 취업모의 사회적 관계망의 수인 평균 5.6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숙영, 1996). 또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사회관계망은 혈연관계가 비혈연 관계보다 우세하며(원효중, 1997), 부모의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가정 소득 등에 따라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와 기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30대 여성의 경우 취업, 결혼, 출산 등의 이유로 친구의 수가 감소하며, 남성의 친구 관계망은 여성의 친구 관계망보다 크기가 큰 반면, 여성의 관계

망은 상호간에 정서적 지지가 높고 더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arrell & Rosenberg, 1981).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이 높은 기혼 여성은 친정으로 받는 지원은 증가하나 시가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은 감소하며, 소득이 높을 수록 기혼 여성이 친정과 접촉하는 빈도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경원, 1989; 이동원, 1984).

한편 Belle(1982)는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 구성원 간의 친밀감 또는 정서적 안정을 주는 사람과의 접촉 횟수보다 아동양육에 관련된 구체적인 도움을 주거나 급한 상황에 의지할 수 있는 지지자의 존재 여부가 사회적 지지로서 부모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2. 사회적 지지와 자녀양육

사회적 지원망과 자녀양육행동을 관련지어 이루어진 몇몇 연구를 살펴 보면, 사회적·정서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지지망은 부모역할수행의 어려움을 덜어 주며(Cochran & Brassard, 1979),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을 가지고 그 지지망에 만족하는 어머니일수록 양육과제를 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elson et al., 1993; 이은혜, 1997). 또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정도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질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신숙재·정문자 1998; Unger & Wandersman, 1985), 자녀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어머니의 경우 사회적 지원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Polansky et al., 1985). 아울러 남아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정도가 많을수록 부모효능감은 높게 나타났다(신숙재, 1997), 높은 부모효능감은 효율적인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문혁준, 1999a),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여부는 역기능적인 가족 관계와 체벌적이고 부적합한 양육행동을 초래하게 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유우영·최진아·이숙, 1998; 박응임, 1995; Abidin, 1990)를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었다(Cmic & Greenberg, 1990). 또한 근래에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아동학대 역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이웃

간에 사회적 교류가 빈번히 일어나며, 특히 아동 양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웃에서 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rse et al., 1990; Garbarino & Sherman, 1980; Kotch & Thomas, 1986).

사회적 지원과 부모훈육방법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망의 수가 많고, 그 지지망에 만족할수록, 부모 훈육 방법은 덜 제재적이면서, 덜 통제적이며, 더 많은 시간을 자녀를 돌보는데 사용하며, 칭찬의 횟수가 빈번하며, 자녀와 상호작용 시 덜 간섭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elson et al., 1993; Corse et al., 1990). 또한 자신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만족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더 지지적이며, 안아주는 등의 애정적인 훈육 행동을 더 빈번히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Jennings et al., 1991; Hashima & Amato, 1994),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도움의 양은 부모의 비지원적인 훈육태도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Hashima & Amato, 1994). 즉,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관계에서 친구나 친척은 비효율적인 방법을 지적해 주는 동시에 효율적인 방법을 모델로 제시한다는 것이다(Cochran, 1993). 덧붙여 10대 부모가 자신의 부모와 거주하며 자녀 훈육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경우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보다 덜 처벌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King & Fullard, 1982).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 중에 지원적 자원도 거의 없는 경우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Jennings et al., 1991). 따라서 사회적 지지체계의 구성원들은 승인과 비판의 방법을 통하여 또는 적절한 부모 양육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부모 훈육방법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 220쌍(아버지 220명; 어머니 220명)이다. 연구대상의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7.7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6세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가 32.2%, 대졸이 45.4%, 대학원 이상이 9.3%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고졸 이하가 47.2%, 대졸이 30.8%, 대학원 이상이 3.3%로 조사대상자 중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이 46%, 상인 9.4%, 건축업 관련종사자 6.9%, 중소기업 경영주 5.9%, 교육자 5.0%, 공무원 5.0%, 서어비스직 4.0%순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는 78.1%가 전업주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교육자 6.4%, 회사원 3.2%, 상인, 2.7%, 공무원 2.7%, 서어비스직 2.3%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 32%, 100~199만원의 가정이 51.4%, 200~299만원이 27.3%, 300~399만원이 11.8%, 400만원 이상이 6.4%로 나타났다.

자녀의 평균 연령은 6.18(SD=.65)세였고, 성별은 남아가 59.5%로 여아보다 조금 많았으며, 자녀수는 1명이 12.3%, 2명이 78.2%, 3명이 8.6%, 4명 이상이 1.0%를 나타내어 1명 또는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90% 이상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2.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정도와 자녀훈육방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사회 인구조적 변인(11문항), 부모훈육방법(21문항), 사회적 지원정도(24문항)에 관한 총 56문항으로 이루어진 아버지용 질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도구의 타당도는 관련 전공 연구자 2인에 의해 안면타당도를 실시하여 검증받았다.

1) 부모 훈육 방법

부모 훈육 방법을 측정하기 위해, Parenting Scale(Arnold, Leary, Wolff, & Acker, 1991)이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이 방임성(9문항), 과잉반응성(5문항), 언어사용의 장황적 표현성(7문항)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훈육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는 .73이었으며 각 차원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방임성 .67, 과잉반응성 .74, 언어의 장황적 표현성 .66이었다.

2) 사회적 지원 정도

본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Weiss(1974)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지지도구가 사용되었으며, 이 도구는 여섯 하위 영역(정보적 지지, 의존적 지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 타인에 대한 지지, 정서적 지지, 소속감의 지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에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4점에서 1점으로 배점하였으며, 사회적 지원에 반하는 12문항의 경우에는 역채점 되었다. 총 점수범위는 24~9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사회적 지원에 대하여 지지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조사는 1999년 5월 중에 실시되었으며, 연구대상으로는 임의로 선정된 부산의 4개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하였다. 부모에게 배부된 질문지 250부(아버지용 질문지 250부, 어머니용 질문지 250부) 중 94%인 235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쌍을 맞출 수 없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시키고 총 220부를 최종분석에서 사용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모든 분석을 유의도 $p < .05$ 이하 수준에서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Cronbach α 의 계수를 구하였다.

<연구문제 1>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 정도에 있어

〈표 1〉 측정도구의 문항수와 문항번호 및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척 도	문 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
정보적 지지	4	3, 12, 16, 19	.77
의존적 지지	4	1, 7, 18, 23	.60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	4	6, 9, 13, 20	.70
타인에 대한 지지	4	4, 10, 14, 24	.73
정서적 지지	4	2, 11, 17, 21	.70
소속감의 지지	4	5, 8, 15, 22	.63
전 체	24		.92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 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 2〉의 사회적 지지체계의 유형별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3〉의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사회적 지지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연구문제 4〉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지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정 수입에 따라 상, 下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t 검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5〉의 사회적 지지체계의 유형과 자녀훈육방법간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 을 산출하였다.

IV. 결 과

1. 부(父)와 모(母)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사회적 지지 정도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 유형별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 을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총 사회적 지지에서 .35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하위 변인에서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를 제외하고 .23~.31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정도가 높은 경우 어머니(아버지)도 높으며, 아버지(어머니)가 낮

〈표 2〉 부(父)와 모(母)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상관계수(r) (부: $n=220$, 모: $n=220$)
정보적 지지	.31**
의존적 지지	.25***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	.09
타인에 대한 지지	.26***
정서적 지지	.28***
소속감의 지지	.23**
전 체	.35***

** $p<.01$, *** $p<.001$

으면 어머니(아버지)도 낮음을 의미한다.

2. 부모의 사회적 지지정도 차이

부모의 사회적 지지 정도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 유형별로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사회적 지원정도는 어머니가 평균값 77.26, 표준편차 9.54이고, 아버지가 평균값 76.23, 표준편차 10.49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정도와 아버지 사회적 지지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지지(父 평균값: 12.58; 母 평균값: 12.20, $t=2.05$, $p<.05$)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게 지각한 것을 제외하고, 정보적 지지(父 평균값: 12.91; 母 평균값: 13.55, $t=-3.81$, $p<.001$), 의존적 지지(父 평균값: 12.49; 母 평균값: 12.82, $t=-2.13$, $p<.05$), 정서적 지지

〈표 3〉 부(父)와 모(母)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부(父)	모(母)	t값
정보적 지지	12.91 ¹ (2.12) ²	13.55(2.08)	-3.81***
의존적 지지	12.49(1.82)	12.82(1.90)	-2.13*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	12.58(2.06)	12.20(2.00)	2.05*
타인에 대한 지지	12.95(2.04)	12.84(1.92)	.615
정서적 지지	12.92(2.09)	13.32(2.09)	-2.40*
소속감의 지지	12.48(2.16)	12.54(1.91)	-.372
전 체	76.23(10.49)	77.26(9.54)	-1.33

1) 평균값, 2) 표준편차
*p<.05, ***p<.001

(父 평균값: 12.92; 母 평균값: 13.32, t=-2.40, p<.05)에서 어머니의 지지 정도가 아버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인에 대한 지지와 소속감의 지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정도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정보적 지지(t=2.17, p<.05)와 의존적 지지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t=2.06, p<.05). 이는 남아를 자녀로 둔 가정의 아버지는 여아를 자녀로 둔 가정의 아버지에 비하여 정보적 지지와 의존적 지지에서 더 높게 지각하는 것

이다. 한편 어머니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정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가정의 수입에 따른 사회적 지지정도

가정의 수입에 따른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가정의 수입이 월 평균 200만원 이상인 가정을 上, 200만원 미만의 가정을 下 두 집단으로 나누고,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는 가정의 수입에 따라 의존적 지지(t=-2.35, p<.05)와 소속감의 지지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t=-2.03, p<.05). 이는 가정의 수입이 上으로 분류된 가정의 아버지는 下로 분류된 가정의 아버지에 비하여 의존적 지지

〈표 4〉 아동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원정도

훈육방법	부(父)			모(母)		
	男兒(n=131)	女兒(n=88)	t값	男兒(n=131)	女兒(n=88)	t값
정보적 지지	13.18 ¹ (2.05) ²	12.55(2.19)	2.17*	13.73(1.95)	13.28(2.25)	1.57
의존적 지지	12.69(1.74)	12.18(1.90)	2.06*	12.88(1.78)	12.73(2.07)	.574
자신의 가치에 대한 지지	12.64(1.98)	12.49(2.19)	.536	12.89(1.78)	12.78(2.11)	.253
타인에 대한 지지	13.02(2.10)	12.83(1.95)	.688	12.23(2.05)	12.16(1.95)	.383
정서적 지지	12.93(2.15)	12.90(2.00)	.116	13.30(2.12)	13.36(2.06)	-.228
소속감의 지지	12.54(2.30)	12.39(1.94)	.521	12.63(2.00)	12.41(1.79)	.851
전 체	76.95(10.48)	75.33(10.43)	1.12	77.66(9.57)	76.73(9.56)	.705

1) 평균값, 2) 표준편차
*p<.05

〈표 5〉 가정의 수입에 따른 부(父)와 모(母)의 사회적 지지

훈육방법	부(父)			모(母)		
	下(n=120)	上(n=100)	t값	下(n=120)	上(n=100)	t값
정보적 지지	1287 ¹ (2.33) ²	1297(1.85)	-356	1362(2.07)	1347(2.10)	.531
의존적 지지	1223(1.93)	1281(1.63)	-2.35*	1266(1.94)	1301(1.84)	-1.35
자신의 가치에 대한 지지	1238(2.21)	1283(1.84)	-1.60	1210(1.94)	1233(2.14)	-.834
타인에 대한 지지	1279(2.05)	1301(2.01)	-1.23	1278(1.89)	1293(1.88)	-.581
정서적지지	1284(2.18)	1301(1.97)	-.558	1336(2.19)	1329(1.97)	.244
소속감의지지	1221(2.24)	1281(2.02)	-2.03*	1248(1.96)	1262(1.86)	-.898
전 체	75.31(10.87)	77.51(9.87)	-1.55	76.99(9.58)	77.64(9.56)	-.501

1) 평균값, 2) 표준편차

*p<.05

와 소속감에 대한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어머니는 가정의 수입에 따른 사회적 지지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사회적 지지정도와의 자녀훈육방법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정도와 자녀훈육방

법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 모두 총사회적 지지정도와 총훈육방법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父: $r=-.19$, $p<.01$; 母: $r=-.24$, $p<.001$). 즉 부모가 사회적 지지정도가 높다고 지각

〈표 6〉 사회적 지지정도와 부모 훈육 방법과의 상관계수

사회적 지지	훈육 방법	방 입 성	과잉반응성	언어의 상황적 표현성	전 체
부(父)					
정보적 지지		-.09	-.06	-.15*	-.15*
의존적 지지		-.14*	-.12	-.09	-.19**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		-.03	-.13	-.12	-.13
타인에 대한 지지		-.02	-.13	-.22**	-.14*
정서적 지지		-.09	-.03	-.11	-.12
소속감의 지지		-.10	-.20**	-.20**	-.25***
전 체		-.08	-.11	-.18**	-.19**
모(母)					
정보적 지지		-.10	-.08	-.18**	-.16*
의존적 지지		-.18**	-.15*	-.27***	-.27**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		-.21**	-.12	-.18**	-.23**
타인에 대한 지지		-.10	-.16*	-.19**	-.20**
정서적 지지		-.04	-.10	-.13*	-.12
소속감의 지지		-.17*	-.08	-.11	-.16*
전 체		-.16*	-.14*	-.22**	-.24***

*p<.05, ** p<.01, ***p<.001

할 수록 효율적인 자녀훈육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과 총훈육방법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경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제외하고 -.14 ~ -.25, 어머니의 경우 정서적 지지를 제외하고, -.16 ~ -.27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영역과 훈육방법의 각 하위영역간에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정보적 지지와 언어의 장황적 표현성, 의존적 지지와 방임성, 타인에 대한 지지와 언어의 장황적 표현성, 소속감의 지지와 과잉반응성 및 언어의 장황적 표현성에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버지가 정보적 지지, 타인에 대한 지지, 소속감의 지지가 낮을수록 자녀 훈육시 장황하게 설명하며, 의존적 지지가 낮을수록 방임적이며, 소속감의 지지가 낮을수록 과잉반응적이라는 것이다.

어머니의 경우 정보적 지지와 언어의 장황적 표현성, 의존적 지지와 방임성, 과잉반응성, 언어의 장황적 표현성,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와 방임성 및 언어의 장황적 표현성, 타인에 대한 지지와 과잉반응성 및 언어의 장황적 표현성, 정서적 지지와 언어의 장황적 표현성, 소속감의 지지와 방임성에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가 정보적 지지, 의존적 지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 타인에 대한 지지, 정서적 지지가 낮을수록 자녀 훈육시 장황하게 설명하며, 의존적 지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가 낮을수록 방임적이며, 의존적 지지, 타인에 대한 지지가 낮을수록 과잉반응적이라는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220쌍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정도에 대해 유형별로 논의하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정도와 부모훈육방법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정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총사회적지지에서 .35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하위변인에서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를 제외하고 .23 ~ .31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아동발달에 미치는 가정환경의 구성에 있어 한 쪽 부모의 사회적 지지정도가 나머지 부모의 사회적 지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양쪽 부모 모두의 사회적 지지정도가 빈약한 경우 아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총사회적 지지정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하위영역인 정보적 지지, 의존적 지지, 정서적 지지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해 혈연이나 친족들과 더 밀접하고 빈번한 관계를 맺으며 (Fischer, 1982), 또한 친정어머니, 형제자매, 친구, 이웃들로부터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것으로 (성영혜, 1993) 보고된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반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에서 아버지의 지각정도가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대상 어머니의 78% 이상이 전업주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생활을 통한 아버지의 자아성취감 또는 만족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현대 사회가 아버지에게도 실제 양육의 부담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어머니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한 아버지 지지체계의 통로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의 차이에서 어머니와 달리 남아의 아버지는 여아의 아버지보다 정보적 지지와 의존적 지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父女 관계보다父子 관계에서 더 많은 역할책임감을 느끼며, 그 결과로써 주위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 및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잔존하는 남아선호 사상의 한 예로써 아들을 가진 아버지로서의 만족감이 급한 상황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은 것으로 지각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거는 기대의 차이(Goldberg, 1990)가 아버지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양미경(1996)의 연구에서 남아의 아버지들이 여아의 아버지들 보다 부모역할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원인의 한 요인으로써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여아를 둔 아버지에게 비해 남아를 둔 아버지의 높은 사회적 지지정도를 들 수 있다.

넷째, 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의 차이에서 어머니와 달리 가정의 수입이 높은 아버지는 수입이 낮은 가정의 아버지에게 비하여 의존적 지지와 소속감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사회적 지지정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 예로 과거 대공황시기에 불황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과 긴장상태가 아버지에게 더 많은 우울감 및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강하였다는 연구결과와(Elder et al., 1984) 소득이 많은 가정은 소득이 적은 가정보다 사회적 지지망이 폭 넓고, 정서적 지지나 실제적인 도움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 Fischer(1982)의 주장과 일정부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아버지 대인관계망의 차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가정의 수입이 많은 아버지는 친목을 위한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도움을 주고 받는 횟수가 빈번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풍요함과 만족감이 여가활동의 기회를 증가시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체계의 유형과 자녀훈육방법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사회적 지지정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효율적인 자녀훈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적 관계망으로 더 많은 동료를 가진 어머니는 더욱 자신감 있는 부모 역할을 하며(Corse et al. 1990), 아동양육에 관한 도움을 받거나 정보를 얻는 어머니들은 아동연령에 더 적합한 자극을 제공할(Cotterell, 1986)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동에게 더 감정적으로 반응적이며(Dunst & Trivette, 1990) 덜 처벌적인 것으로(Reis et al, 1986) 밝혀진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 결과의 과정을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부모로서의 자신과 자녀에 대해 더 긍정적인 관점을 증가시키고(Brooks, 1996), 지지적이며 양육경험이 많은 주위 사람들의 격려로 자신감을 얻은 어머니는 긍정적인 생활능력과 만족감을 가지게 되며(Cochran, 1993), 그 결과로써 부모역할의 수행에 있어 수월하게 지각할(Levitt et al, 1986)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더 민감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Berk, 1997).

여섯째, 사회적 지지의 유형과 세부 훈육방법간의 관계에서는 아버지는 정보적 지지, 타인에 대한 지지, 소속감의 지지가 낮을수록 자녀 훈육시 장황하게 설명하며, 의존적 지지가 낮을수록 훈육 이행에 있어 방임적이며, 소속감의 지지가 낮을수록 과잉반응적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는 정보적 지지, 의존적 지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 타인에 대한 지지, 정서적 지지가 낮을수록 자녀 훈육시 장황하게 설명하며, 의존적 지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가 낮을수록 훈육 이행에 있어 방임적이며, 의존적 지지, 타인에 대한 지지가 낮을수록 과잉반응적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einraub과 Wolf(1987)의 연구에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어머니는 취학 전 자녀에게 긍정적인 언어적·비언어적 의사 전달 방법의 사용 및 높은 빈도의 칭찬과 격려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주목해야 할 시사점은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육방법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사실로써 부모의 훈육을 연구하는 데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기 분리하여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사회 지지망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미국의 MELD(Minnesota Early Learning Design)의 지원을 통하여 실시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면, 2년간 지속된 이

프로그램의 참가 부모들은 다른 참가 부모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적 지지망을 폭 넓게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 발달에 관련된 지식도 프로그램 참가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owell & Leif, 1990). 따라서 국내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단기적 부모교육 혹은 지원 프로그램에서 장기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또한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된 자료의 수에 기초하고 있고, 양부모 가족만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측면에서 일반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핵가족, 편부모 가족, 취업모 가족 등 가족형태 유형별로 또는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등 발달단계별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정도와 훈육방법 및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비교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본 연구는 자녀훈육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능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았으나,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사회적 지원의 부정적 측면(Cochran, 1993)이 추후연구에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또 다른 주요 사회적 맥락 요인인 부모의 스트레스를 각 하위 기능별로 사회적 지지와 연결시켜 자녀훈육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정도를 유형에 따라 살펴보았으나, 선행연구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 주위사람들의 지원보다 더 영향력이 큰 점(신숙재·정문자, 1998)을 고려할 때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체계와 부모훈육방법과의 관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적 지지정도가 자녀훈육방법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효율적인 자녀훈육방법의 사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아동 발달의 매개 변인의 역할로써 사회적 지지를 부모의 양육방식과 연관시켜 살펴보는 작업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실제적인 차원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버지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정도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정도간에는 유의한 정적관계가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지지 정도는 정보적 지지, 의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세 영역에서 아버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는 자신의 평가적 지지에서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다.
3. 남아의 아버지들이 여아의 아버지들에 비해 정보적 지지와 의존적 지지에서 높게 나타났다.
4.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버지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버지에 비하여 의존적 지지와 소속감의 지지에서 높게 나타났다.
5. 부모가 사회적 지지정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효율적인 자녀훈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1)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2), 21-37.
- 2) 구순주·최보가(1998). 어머니 관련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 23-34.
- 3) 김경원(1988). 친족관계망 유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숙영(1996).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 발달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영주(1995). 신문에 실린 아동 관련 기사를 통해서 본 아버지 역할 내용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5), 153-166.
- 6) 문혁준(1998).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91-101.
- 7) _____(1999a).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8) _____(1999b). 아동기의 부모 자녀 양육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9), 141-151.
- 9) 박문학(1989). 아버지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녀양육 참여와의 관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박민선·박성연(1999). 경제불황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 *이동학회지*, 20(2), 57-74.
- 11)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성영혜(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3) 신기영(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 지원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신숙재·정문자(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16)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부모 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17) 원효중(1997). 도시 핵가족 주부의 사회관계망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유우영·최진아·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19) 유지영·김명자(1996).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51-165.
- 20) 이동원(1984). 도시 주부의 관계망에 대한 조사: 시가 및 친가와외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논총*, 44, 7-30.
- 21) 이은숙(1988).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 아 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2) 이은혜(1997).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자녀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아동의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5(3), 31-45.
- 23) 이은혜·이미리(1996).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곤란도 지각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61-78.
- 24)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5)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Pediatric Psychology Press.
- 27) Antonucci, T.(1990). Social supports and social relationships. In T. Antonucci (ed.),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California: Academic Press.
- 28) Arnold, D. S., OLeary, S. G., Wolff, L. S., & Acker, M. M. (1993). The parenting scale: A conduct disordered boys: Who effects whom. *Developmental Psychology*, 22, 604-609.
- 29) Belle, D. (1982). Social ties and social support. In D. Belle (ed.), *Lives in stress: Women and depression*(Ch, 10). Beverly Hills, CA: Sage.
- 30)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31) Belsky, J., Lerner, R. M., & Spanier, G. B. (1984). *The child in the family*. NY: Random House.

- 32) Berk, L. E. (1997). *Child Development*.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33)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2, No 6.
- 34) Brooks, J. B. (1996). *The process of parenting*. Mountain View: CA: Mayfield.
- 35) Cochran, M. (1993). Parenting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36) Cochran, M., & Brassard, J. A. (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 37) Corse, S. J., Schmid, K., & Trickett, P. K. (1990).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of mothers on abusing and nonabusing famili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arenting belief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44-59.
- 38) Cotterell, J. L. (1986). Work and community influences on the quality of child rearing. *Child Development*, 57, 362-374.
- 39) Craig, G. J. (1983). *The middle years: Continuity and change in human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 40) Creech, F. C. (1991). Par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s related to parental interpersonal support and selected parental attribu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41)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42) Crockenberg, S. (1988).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In Fitzgerald, B. Lester, & M. Yogman (eds.), *Research on support for parents and infants in the postnatal period*(pp. 67-92). New York: Ablex.
- 43) Dunst, C. J., & Trivette, C. M. (1990). Assessment of social support in early intervention programs. In S. J. Meisels & J. P. Shonkoff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44) Elder, G. H., Jr., Liker, J. K., & Cross, C. E. (1984). Parent-child behavior in the Great Depression: 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In P. B. Baltes & O. G. Brim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Vol. 6, pp. 109-158). New York: Academic Press.
- 45) Farrell, M. P., & Rosenberg, S. D. (1981). *Men at midlife*. Boston: Auburn House.
- 46) Fischer, C. (1982). *To dwell among friends: Personal networks in town and c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47) Garbarino, J., & Kostelny, K. (1992). Child maltreatment as a community problem. *Child Abuse & Neglect*, 16, 455-464.
- 48) Garbarino, J., & Sherman, D. (1980). High-risk neighborhoods and high risk families: The human ecology of child maltreatment. *Child Development*, 51, 188-198.
- 49) Hashima, D. Y., & Amato, P. R. (1994). Poverty, social support, and parent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5, 394-403.
- 50) Hornel, R. B., Burns, A., & Goodnow, J. (1987). Personal social network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Personal Relationships*, 4, 157-177.
- 51) Jennings, K. D., Stagg, V., & Connors, R. E. (1991). Social network's and mother's interactions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2, 966-978.
- 52) King, T., & Fullard, W. (1982). Teenage mothers and their infants: New findings on the home environment. *Journal of Adolescence*, 5, 333-346.
- 53) Kotch, J. B., & Thomas, L. P. (1986). Family and social factors associated with substantia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reports. *Journal of Family*

- Violence*, 1, 167-179.
- 54) Lamb, M. E. (1987). *The fathers role: Cross-cultural perspective*. Hillsdale, NJ: Erlbaum.
- 55) Levitt, M. J., Weber, R., & Clark, C. (1986).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s sources of maternal support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10-316.
- 56) Melson, G. F., Ladd, G. W., & Hsu, H. (1993). Maternal support networks, maternal cognitions, and young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 1401-1417.
- 57)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J. (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 Castalia.
- 58)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NJ: Prentice-Hall.
- 59)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5), 908-923.
- 60) Polansky, N., Gaudin, J., Ammons, P., & Davis, K. (1985). The psychological ecology of the neglectful mother. *Child Abuse & Neglect*, 9, 265-275.
- 61) Powell, D. R., & Leif, K. (1990). *Information and social support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 study of MELD*.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Family Resource Coalition, Chicago.
- 62) Reis, J., Barbera-Stein, L., & Bennett, S. (1986). Ecological determinants of parenting. *Family Relations*, 35, 547-554.
- 63) Rook, K. S. (1990). Social networks as a source of social control in older adult's lives. In H. Giles, N. Coupland, & J. M. Wiermann (eds.), *Communication, health and the elderly*(pp. 45-63). Manchester, England: Manchester University.
- 64) Unger, D. G., & Wandersman, L. P. (1985).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 mothers: Action research contributions to theory and applic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1, 29-45.
- 65) Weinraub, M., & Wolf, B. (1987). Stress, social supports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ingle-parent and two-parent families. In C. F. Z. Boukydis (ed.), *Research on support for parents and infants in the postnatal period*(pp. 114-138). Norwood, NJ: Ablex.
- 66) Weiss, R. S. (1974). The provision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 (ed.), *Doing unto others*(pp. 17-26).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